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제591호

지면안내 **04** 문화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놀이터, 팝업스토어

05 사람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다

06 학술 괴음이 불러온 괴로움, 숙취

08 광고 제5기 수습기자 모집

총장선출제도 개정 요구,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조합 '총장투표권 차별철폐!!!', '직원은 삼등분??' 피켓 들고 침묵시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한성대학교지부(이하 노동조합)의 직원 총장선출투표권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에 직원의 본교 총장선출 권리 확충을 촉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8월 18일 열린 한성학원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이하 정관 시행세칙)」에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내 인터넷을 통해 교수·직원 전체에게 '총장선출투표권 요구 미수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8월 14일 발송했다. 이후 상 상관과 연구관에 성명서와 같은 내용의 대 자료를 게시했다. 8월 18일, 학교법인 한성학원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가 열린 상 상관 9층 대회의실 앞에서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총장투표권 차별철폐!!!', '직원은 삼등분??'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성명서에서 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즉각 이행하라 ▲총장 후보자선정위원회 직원 대표를 3인으로 확대하라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권을 직원 1인당 1표를 부여하라 등의 요구사항도 성명서를 통해 공개했다. 노동조합이 지난 2월부터 변동 없이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다.

본교는 정관 시행세칙 제3장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 총장을 선출한다. 개정 이전의 정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수 대표 3인 ▲직원 대표와 학생 대표 각 1인 ▲이사회 대표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먼저 설립된다.



▲상상관 9층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노동조합

선정위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총장 '예비후보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선출되면 교수와 직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 3인을 결정한다. 이후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후보자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선정위의 이사회 대표는 3인으로 감원됐고, 동문 대표 1인이 신설됐다. 개정 사항은 노동조합이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후 구성된 이사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소위원회는 총장선출에 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조직된 이후 4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노동조합은 선정위의 직원 대표 정수가 교수나 이사회 대표에 비해 적기 때문에, 직원 대표의 수를 3인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윤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한성대학교지부장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선정위에 이사회 대표의 수가 가장 많고 최종 결정권도 이사회가 가진다"고 밝혔다.

한성학원은 선정위 직원 대표 정수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정위의 직원 대표 정수를 확대하면 전체 9

인의 정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사회 대표의 정수가 4인으로 가장 많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 대표 1인을 감원하고 동문 대표를 신설했다. 전장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직원 대표 수를 확대하면 다른 구성원 대표 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사회 대표 수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 대표 1인을 감원하고 동문 대표 1인을 신설한 것"이라 전했다.

노동조합은 직원도 교수와 같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현재 직원은 1인 1/3표를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지부장은 "정년이 보장돼 20년에서 30년 정도 근무하는 직원이 1인 1표

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전했다.

최종후보자 선정의 직원 투표권 확대 요구에 대해 한성학원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1인 1/3표는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 사무국장은 "본교 직원이 갖는 투표권 비율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다"며 "직원이 갖는 투표권 비율이 월등히 높은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학내 민주화와 직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추후 행보를 밝혔다. 윤 지부장은 "총장 선출이 있는 4년마다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평소에도 계속 직원 투표권 향상을 주장하는 것이 직원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행정 수반을 선출할 때 학교의 3주 체인 교수·직원·학생의 의사가 모두 반영된 민주적인 절차의 제도가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사회는 불필요한 예비후보자 사퇴를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가 교내인사와 교외인사 중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 정관 시행세칙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중 본교 재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어느 한 쪽도 2/3를 넘어서는 안 됐다. 그러나 제10대 총장 선출 당시는 외부 인사가 지원하지 않아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비율 조정이 불가했다. 이에 선정위는 기존 정관 시행세칙 제12조 제5항에 의거해,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이유와 대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했다. 전 사무국장은 "해당 조항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보고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낙산에 올라 소리치는 당신의 생각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 자유 주제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생리대 자판기 모두 철거 예정



사진 : 박희진 기자

▲우촌관 3층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생리대 자판기

본교 여자화장실 내에 설치된 총 7대의 생리대 자판기(이하 자판기)가 전부 철거될 예정이다. 자판기의 운영 주체는 외부인인 것으로, 자판기로부터의 수익성이 악화돼 자판기가 방치됐다. 대학본부는 자판기 철거 전까지 '판매 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겠다고 전했다.

학내 자판기 다수는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우촌관 3층 ▲진리관 2층 ▲창의관 1층 ▲미래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의 자판기는 동전을 넣어도 생리대가 나오지 않거나, 동전이 반환되지 않는다. 우촌관 3층과 진리관 2층의 자판기는 생리대가 아예 없

거나 1개만 남아있는 등 재고 관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외의 ▲탐구관 1층 ▲공학관 A동 1층 ▲낙산관 1층 자판기만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판기 운영 주체와 대학본부 모두 약 6개월 내에 모든 학내 자판기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자판기를 운영해 온 관계자는 "이용자 수가 적고, 자판기도 노후돼 수리할 방법이 없어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민(학생장학팀) 부팀장은 "혼돈하는 학생이 없도록 자판기 철거 전까지 '판매 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본부는 철거 예정인 자판기 대신, 학내 편의점이나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마트24' 편의점은 지난 24일, 창의관 지하 1층 매점 자리에 새로 문을 열었다. 박 부팀장은 "이마트 24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시험기간 등 일부 특정 기간에 24시간으로 운영하게 되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차장은 "상상관 1층 건강관리실에 긴급한 사정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에 한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1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 서은경 교학부총장, 하성욱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 학장, 디자인아트교육원장 등 교내 인사와 학위수여자가 참석했다.

이날 학부 466명, 석사 89명, 박사 17명, 디자인아트교육원 56명의 총 628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성적우수상 35명 ▲공로상 51명 ▲한성인재인증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동문회장상 1명 등 총 91명이 수상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1명 ▲우수논문상 5명 ▲성적우수상 11명 ▲공로상 18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으로, 총 37명의 수상자가 있었다. 디자인아트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에게 수상이 이뤄졌다.



사진 : 김우성 기자

▲학위수여식 당일, 학사모를 던지는 학생들
학부 우촌상을 받은 송수아(사회과학 4) 졸업생은 "평소 수업한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고 시험기간에는 공부한 기록들을 돌아보며 정리했다"며 "동아리나 서포터즈 등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며 학교생활을 즐겨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본교서 잼버리 국악공연 개최

태풍으로 인해 조기 퇴영한 잼버리 대원 일부가 지난 10일 본교에서 전통무용 및 타악기 공연을 관람했다.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당 공연은 성북구청이 주최했으며, 대학본부는 장소 대관과 지원 업무를 맡았다.

성북구를 방문한 대만 잼버리 대원들은 구내 문화체협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본교로 왔다. 총 276명의 잼버리 대원 및 관계자가 관람한 공연은 ▲가야금 연주 ▲난타 ▲부채춤 등으로 구성됐다. '무형유산연합 백미' 소속의 무용수와 연주자, 타악 전문 공연 그룹 '디딤소리'

등이 공연자로 나섰다. 대원들은 관람 도중 "얼씨구!", "좋다!" 와 같은 추임새를 배우고 외치기도 했다.

이경민(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K-pop에 비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우리 전통무용과 음악을 알리고자 본 공연을 진행했다"며 "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원 업무를 담당한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안전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며 "본교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우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학내 구성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대학본부가 지난 6월 30일 관련 규정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교육 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중 안 내될 예정이다.

우선, 학생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됐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이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학생(교환학생 포함)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주제별로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

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변경된 것이다.

학생이 이수하게 될 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다. 두 가지 교육을 각각 1년에 1회, 1시간 이상씩 수강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성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순선(한성인권센터) 팀장은 "성적 조회와 관련한 조치는 학사지원팀과 논의가 완료된 상태

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은 정보화팀과 협의 중"이라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 외에도 교원과 직원 그리고 조교 역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변경되면서다. 구체적으로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및 조교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주제

별로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임용된 교원, 직원, 조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됐다. 해당 개정을 통해 기존 임용자도 교육 대상이 됐으며, 신규 임용자의 대상도 명확해졌다.

이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다. 4가지 교육 모두를 각각 1년에 1회, 1시간 이상씩 수강해야 한다.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직위고과평정이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교원과 조교의 경우, 아

직 확정된 독려책은 없다. 다만, 추후 이들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본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고자 교육을 필수화했다는 입장이다. 정 팀장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을 명시했다"면서 "교육 필수화는 대학 구성원의 윤리적 규범 준수,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 성인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희 기자 enqk@hansung.ac.kr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제보하기

학생의 권리를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블렌디드 러닝, 학생·교수 대다수 '만족'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안내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학기 본교 수업 중 약 47%가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됐다. 수업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블렌디드 러닝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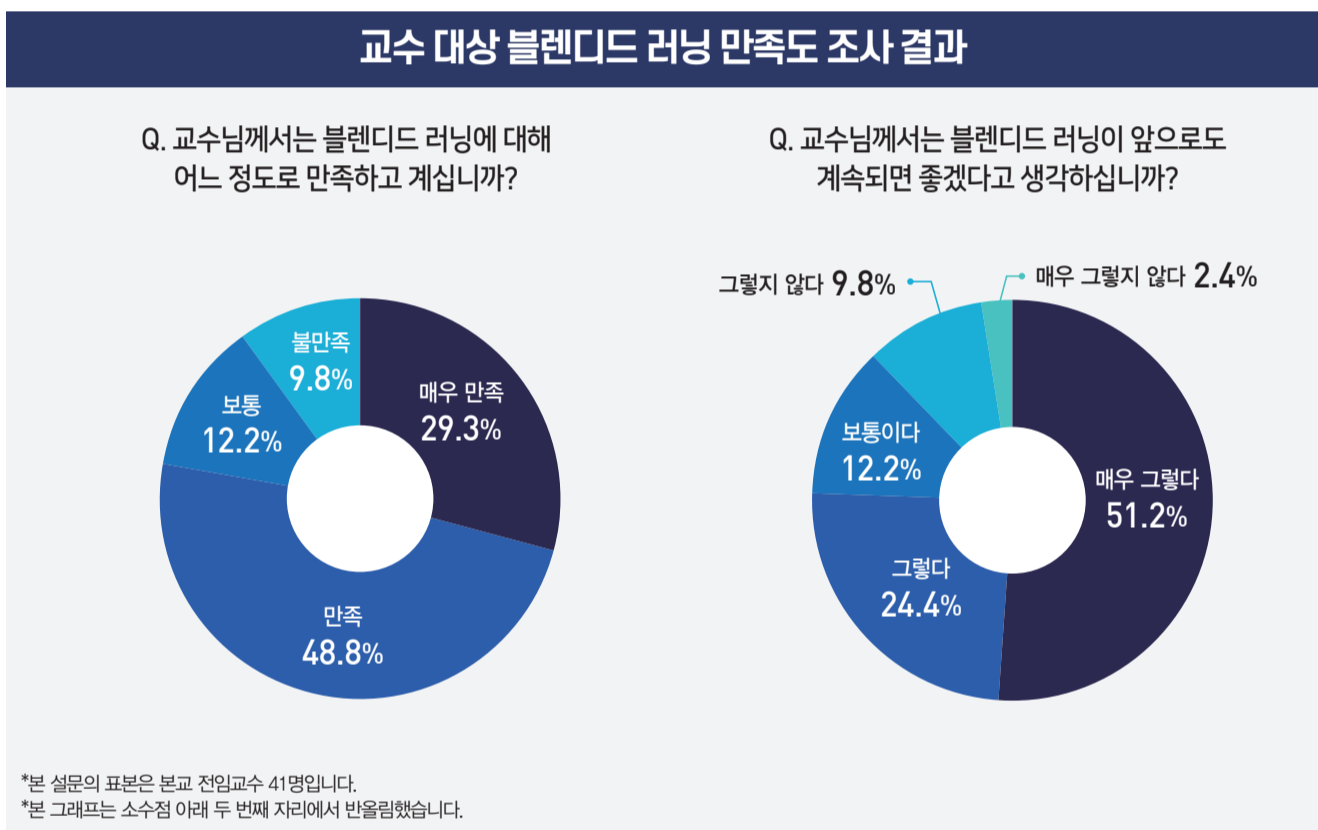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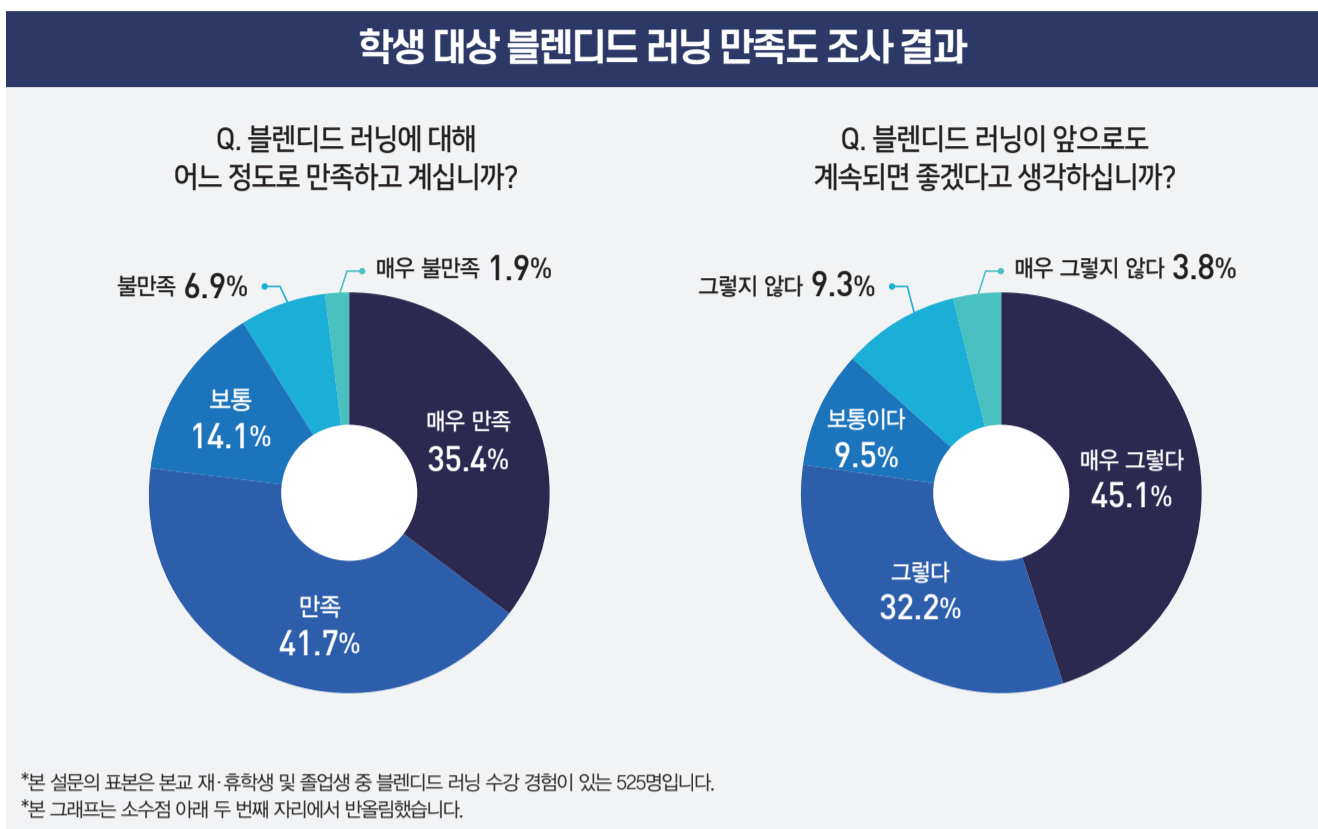
이에 블렌디드 러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본사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학생과 전임교수진을 대상으로 '학생 대상 블렌디드 러닝 만족도 조사(이하 학생 만족도 조사)'와 '교수 대상 블렌디드 러닝 만족도 조사(이하 교수 만족도 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한 학생 만족도 조사는 본교 재·휴학생과 졸업생 중 블렌디드 러닝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525명이 참여했다. 7일부터 1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교수 만족도 조사는 41명의 전임교수가 응답했다. 두 만족도 조사는 ▲블렌디드 러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e-class 서버에 대한 의견 ▲블렌디드 러닝 지속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묻는 문항들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대체로 블렌디드 러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35.4%)', '만족(41.7%)'한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77.1%였다. 유태영(IT 1) 학생은 "블렌디드 러닝은 단점에 비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족 의견을 남긴 학생들은 '블렌디드 러닝에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녹화 강의를 활용한 복습이 가능해서(78.8%)',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어서(73.6%)'라고 응답했다. 또한 '녹화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대면수업을 듣는 것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편해서(56.3%)'라고 절반 이상의 학생이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수업 중 공지사항을 e-class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어서(30.4%)', '여러 자료와 기능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어서(15.3%)' 등이 만족 이유로 꼽혔다. 엄민욱(컴공 2) 학생은 "예습 형식으로 녹화 강의를 수강하고 대면 강의에 참석하면 학습 효율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지호(인문 3) 학생은 "녹화 강의 수강은 일정 수립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전언했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불만족(6.9%)', '매우 불만족(1.9%)'이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8.8%였다. 이들은 '녹화 강의의 경우 집중이 어려워서(76.1%)', '수업 내용을 교수자에게 바로 질문할 수 없어서(39.1%)', '조별과제 등의 활동에서 학우들과의 소통이 어려워(30.4%)' 등의 이유로 불만족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는 '교내 실습실을 활용한 실습이 어려워(26.1%)', 'e-class 서버 불안정 등 기술적 오류가 잦아서(8.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정민(상상력 1) 학생은 "녹화 강의가 대면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지훈(IT 1) 학생은 "학습 이해도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는 대면수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e-class 서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녹화 강의를 수강하면서 e-class의 서버 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63.2%)'라고 답한 학생이 많았지만, '예(36.8%)'라고 답한 학생도 존재했다. 배 학생은 "인터넷 상태가 원활했던 상황에서도 과제가 제출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현(IT 1) 학생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음에도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았던 오류를 겪은 적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e-class 관리를 담당하는 채민수(스마트원격교육센터)



학술연구원은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녹화 강의를 수강할 경우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강하기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더 나은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배속 기능의 추가를 바라기도 했다. "녹화 강의에 배속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반면, 부정 수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녹화 강의의 배속 기능 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43.2%)', '찬성한다(37.5%)'로 80.8%의 학생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대한다(5.7%)', '매우 반대한다(1.9%)'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박소희(IT융합 3) 학생은 "녹화 강의의 빠르기가 고정돼 있어 다소 답답했다"고 말했다. 임 학생은 "개인의 학습 속도에 비해 강도가 느리다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속 기능 도입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해진 녹화 강의 사용 기한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원격수업 콘텐츠는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 녹화 강의 사용 기한을 제작일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학생들은 "3년이면 적절하다(67.9%)는" 응답을 가장 많이 보였다. "3년보다 길어야 한다(17.9%)"와 "3년보다 짧아야 한다(24.2%)"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박소희 학생은 "사용 기한이 3년을 넘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고 말했다. 전 학생 또한 "꾸준히 학문의 경향이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현대에 3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싶다"며 "최근에 찍은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결국 학생들은 블렌디드 러닝의 지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블렌디드 러닝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45.1%)', '그렇다(32.2%)'고 답한 학생은 총 77.3%에 달했다. 박병현 학생은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점, 언제든지 영상을 통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와 블렌디드 러닝이 지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학생은 "블렌디드 러닝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학업 성취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해 지속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같은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9.3%)', '매우 그렇지 않다(3.8%)'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이미 지나온 만큼, 블렌디드 러닝은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전 학생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거의 종료된 지금, 원래 방식인 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진 역시 블렌디드 러닝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학생들과 의견이 일치했다. '교수님께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29.3%)',

'만족한다(48.8%)'는 답변이 전체의 78%로 나타났다. 한명진(사회과학부) 교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족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복 시청이 가능해 학생의 이해에 도움을 줘서(84.4%)' 답변이 가장 많았다.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도와줘서(71.9%)' 만족한다는 답변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교수진이 블렌디드 러닝에 만족하는 다른 이유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져서(31.3%)', '공지사항을 편리하게 게시할 수 있어서(9.4%)', '출결 등 수업에 대한 정보가 전산화돼 있어서(9.4%)' 등이 뒤를 이었다. 박준철(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은 학업 성취도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혁(뷰티디자인메이저먼트학과) 교수는 "재직자들이 많은 미래플러스대학의 경우 주 1회 등교하는 방식인데, 시간 제약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반면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불만족한다(9.8%)'고 응답한 교수도 존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75%)' '영상 녹화 등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50%)',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25%)' 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홍정만(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우선, 실시간 화상 강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교수진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반대한다(29.3%)', '매우 반대한다(19.5%)'고 응답한 교수진이 전체의 48.8%로, '매우 찬성한다(4.9%)', '찬성한다(24.4%)'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심규현(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실시간 화상 강의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웠다"고 솔회했다. 또한 한 교수는 "실시간 화상 강의는 효율성 면에서 녹화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중력 면에서는 대면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 강의 제작에 있어 대학본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교수진 절반 이상이 드러냈다. '교수님께서 녹화 강의를 촬영·제작하는 데에 대학본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14.6%)', '그렇다(31.7%)'고 응답했다. 한 교수는 "가능하면 개인 카메라나 마이크, 펜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연구원은 "현재 콘텐츠 디자인, 원격 수업 매뉴얼,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학생이 녹화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녹화 강의를 불시에 정지됐다가 재생 버튼을 눌러야 재생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수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성실한 수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2.4%)', '반대한다(4.9%)'는 응답은 '매우 찬성한다(36.6%)', '찬성한다(26.8%)'에 비해 적었다. 권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를 켜 놓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 교수는 "학생의 성실한 수강을 위해 녹화 강의를 수강해야 풀 수 있는 퀴즈나 연습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진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e-class 서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도 응답했다. '교수님께서 더 나은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e-class의 서버가 안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교수진 대상 질문에는 교수진의 '매우 찬성한다(43.9%)', '찬성한다(24.4%)'는 답변이 총 68.3%로 집계됐고, '반대한다(4.9%)'는 응답도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교수진 대부분도 블렌디드 러닝 지속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님께서 블렌디드 러닝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51.2%)', '그렇다(24.4%)'라고 응답한 교수진이 전체의 75.6%였다. 한 교수는 블렌디드 러닝 지속에 대해 "영상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맞춤형 강의라고 생각한다"며 "영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대면수업을 통해 보완 가능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블렌디드 러닝 수업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9.8%)', '매우 그렇지 않다(2.4%)'고 응답한 교수는 총 12.2%였다. 홍 교수는 "토요일 하루만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재직자 과정의 수업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블렌디드 러닝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에 앞으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존재하던 시기 동안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조성했다"며 "수업 특성에 따라 블렌디드 러닝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가 있기에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 속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건물 밖으로 사람이 줄줄이 늘어선 ‘팝업스토어(Pop-up store)’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팝업스토어 방문이 유행하면서 더 다양한 방식의 팝업스토어가 생겨나고 있다. 그중 소비자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팝업스토어부터 덕질의 장이 되는 연예인 팝업스토어, 그리고 도심 속에서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와 ‘인생샷’을 건지러 가는 팝업스토어 등을 기자가 직접 다녀와 봤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놀이터, 팝업스토어



▲제주 삼다수 팝업스토어 내 전시 공간이다.

사진: 신지원 기자

그냥 매장이 아니구나?

팝업스토어는 인터넷에 뒀다 사라지는 팝업 창과 같이, 대중이 모이는 특정 장소에 짧게 상품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이다. ‘반짝 매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짧게는 2주, 길다면 3달가량 운영되기에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방문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장이 사라지기 전 빠르게 방문해야 소비자에게 일종의 조바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기간만큼이나 판매하는 상품도 특별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기회일 수 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모니터 속에서 눈으로 어림잡작해 구매해야 했던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 구매할 수 있다. 접해본 적 없던,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던 상품을 접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교수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층은 유독 팝업스토어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오프라인에서의 팝업스토어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구매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팝업스토어는 일반적인 매장보다 재미의 요소를 더한 공간을 마련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몸을 움직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일종의 놀이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팝업스토어는 다양한 재미 요소를 갖추고 있어 인기를 끈다”고 전했다.

오감으로 즐기기

팝업스토어에서의 경험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세계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브랜드 자체의 세계관과 제품이 가진 스토리를 체험과 전시 형태로 나타내는 팝업스토어가 특히 그렇다. 그 중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제주 삼다수’ 팝업스토어를 찾아왔다. 이곳에서는 VR과 ASMR 체험 및 전시 관람이 가능했다.

VR과 ASMR 모두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기자도 도전해 봤다. VR 기기를 장착하고 자연 속 펼쳐진 세계를 돌아다니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ASMR 체험도 시도했다. 헤드셋을 끼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면에 놓인 화면 속 제주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전시공간은 현무암과 페트병이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대한 공간에 마련된 전시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색

다른 자연의 느낌이 들었던 전시였다.

이러한 체험, 그리고 전시 형식의 팝업스토어가 MZ세대의 흥미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들에게 단순 매장 형식의 팝업스토어는 식상하게 느껴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팝업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남초현 학생은 “체험 형식의 팝업스토어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매장 형식의 팝업스토어와 다르게 촉각, 청각 등 오감을 모두 사용하며 즐길 수 있어 지루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심 한복판, 나만의 해변

무더웠던 지난날, 서울 한복판에 여름 바닷가가 펼쳐지는 팝업스토어가 숨어있어 찾아가 봤다. 팝업스토어는 셀프 사진 부스 매장에 위치해 있었다. 양쪽에 나열된 셀프 사진 부스를 지나, 벽 끝으로 청년들이 줄지어 서 있는 수상한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다. 기자는 궁금증을 잠치 못하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려 자판기를 열고 어느 공간으로 들어갔다. 시원한 바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향수 브랜드와 협업해 ‘여름’을 주제로 꾸며놓은 공간이었다. 모래로 하트를 파고, 그 안에 휴대폰을 넣어 하늘이 보이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최신 유행 공간도 존재했다. 직접 내부를 둘러보니 실제로 해변가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청년들의 여름 휴양지는 멀리 있지 않은 듯하다.

해당 팝업스토어의 독특한 설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타 팝업스토어와 달리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티켓 제한시간을 5분으로 설정해 앞서 사람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사적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껏 공간을 즐길 수 있었다.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연 학생은 “멀리 가지 않아도 팝업스토어에서 휴양지 분위기의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인생샷, 무조건 건진다

어느 곳이든 ‘인생샷 맛집’이 아니라면 MZ세대의 이목을 끌 수 없다. 조용한 골목길,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눈에 띄는 소품샵 건물 안으로 북적거리는 청년들이 눈에 들어온다. 입구에 들어서자, ‘하이틴’ 향기를 물씬 머금은 인테리어와 각종 소품이 보인다. 해당 팝업스토어는 하이틴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청년이 수없이 많다. 마련된 공인형, 쿠션, 침대 등을 활용해 사진을 찍으니 하이틴



▲기자가 하트 모양으로 뚫은 모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사진: 황서연 기자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 하이틴이라는 주제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힘껏 뽐내 사진을 찍을 수 있기에 이곳으로 청년들이 몰리나 보다.

의상과 머리를 하이틴 콘셉트에 맞춰 와 기념하는 청년들도 존재했다. 이곳은 교복이나 게임 등장인물 등 각종 콘셉트에 맞춰 꾸민 이들로 넘쳐났다. 그들이 입은 교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 교복 대여점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분명 이 팝업스토어에서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대어려 왔음이 틀림없다. 게임 속 등장인물의 의상과 머리를 똑같이 모방한 청년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하이틴을 사랑하는 이라면,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놓칠 수 없는 팝업스토어임이 분명하다. 서울 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연 학생은 “평소에도 하이틴 콘셉트를 좋아했는데, 하이틴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가 생겨 관련 소품과 포토존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 즐거웠다”고 전했다.

한 수 위에 있는 팬이 된 기분

연예인이 브랜드화돼 그들의 굿즈를 중심으로 한 팝업스토어도 존재한다. 이러한 팝업스토어는 굿즈를 판매함과 동시에 팬들의 만남의 장이 된다. 그 중 기자는 인기 그룹 ‘NewJeans(이하 뉴진스)’의 팝업스토어에 다녀왔다.

팝업스토어에 도착하니 매장 밖으로 늘어선 젊은 층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에 들어가니 밖보다 더 북적거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각종 굿즈를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팝업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 굿즈도 존재했다.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굿즈라니! 희소성 상품인 그 존재만으로 팝업스토어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재원 학생은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굿즈는 다양성보다는 희소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팝업스토어는 팬들이 모이는 덕질의 장이 되기도 했다. ‘연예인’이 콘텐츠화되는 특성상 팬들이 몰리는 건 당연했다. 실제로 뉴진스의 팝업스토어에는 팬들로 보이는 청년층이 가득했다. 너도나도 앓다뒹 덕질을 표현하듯 바구니 한가득 굿즈를 사가는 이들도 많았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유행으로 퍼졌다. 팝업스토어 방문이 덕질의 방법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남 학생은 “연예인의 공연을 찾아가고, 예능을 보는 것처럼, 아티스트의 팝업스토어에 가는 것도 일종의 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연예인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한 굿즈를 든 기자다.

사진: 박건희 기자



▲기자가 소품샵 팝업스토어의 포토존을 이용한다.

사진: 신지원 기자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다

홀라 안진나 대표

등곳길이 공사 구역으로 변모한 지 벌써 3년. 삼선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본교를 둘러싸던 오밀조밀한 주택과 추억의 공간들이 사라졌다. 도시를 살아가며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재개발, 어딜가나 비슷한 모양새로 변하는 지금의 획일적인 방식만이 해답일까.

그래서 도시에 대해,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는 사람을 찾아갔다. 터에 무늬를 일궈내는 '터무니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내세운 '홀라(HOOLA)'의 안진나(38) 대표다.

'홀라'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인문예술팀이자 지역의 폐자원을 활용해 악기를 제작하고 또 연주하는 업사이클(Up-cycle) 밴드다. 그가 그려나가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길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가 꿈꾸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보자.

도시

안 대표가 도시와 재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의 한 수업이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공간의 가치를 재생산·재해석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도시에 의미를 부여하게 했다. 일례로 오래된 한옥과 근대 건축물이 펼쳐진 골목들을 방문해 그곳의 역사 등 이야기를 들으며 기존의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한 것이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알고만 있던 장소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순간이었다.

"수업은 강의실 밖으로 나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각각의 장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나니, 내가 있는 공간이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온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도시 속 공간들을 유심히 살피게 됐죠."

그는 강의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 조사를 나가며 직접 발로 뛰었다. 안 대표가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탐구 대상은 주로 시골이었었는데, 전통의 가치를 중시해 사라져가는 공간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탐구 대상이 시골로 치우쳐 있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는 의문을 품었다. 그의 일상은 시골이 아닌 도시 속에 있었으니 말이다. 학교 담벼락 너머 곧장 보이는 '내가 사는 이 공간'도 조사해 보고자 하는 열망을 품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는 도시가 더 궁금해졌다.

경북대학교 학부 전공인 고고인류학과 영어영문학의 수업이 아닌 강의에서 상술한 경험을 해낸 안 대표는 도시 속 공간을 연구해 보고자 동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도시인류학과 석사과정을 지내며 시간과공간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대구광

역시에 위치한 시간과공간연구소는 대구 전역 일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사라진 일제강점기 당시의 터를 연구하거나 과거 지도를 고증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도심 재창조 모델을 목표로 한다.

"연구실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 학교 안 공부 외의 것들에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도중에 시간과공간연구소에 입사했어요. 일을 하면서 석사과정을 수료했죠."

시간과공간연구소에서 그는 대구의 복성로 관련 연구에 매진했다. 복성로 역사의 뼈대에 살을 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복성로는 당시 주로 '공공 골목'의 역할로만 기능해 점차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있었다. 그는 파편적으로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만 이용되는 도시가 아닌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기에 단순한 산책으로 도시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이후에는 도시를 본뜨는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 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모양새를 탐구했다.

"복성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할 뿐 아니라 인류학적인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복성로를 개척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지역 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 등이 예시가 되겠네요. 이런 연구를 통해 도시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했어요. 결국 끈질기게 복성로를 연구해 더 많은 사람이 복성로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죠. 책을 제작하기도,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면서 구현해 낸 결과였어요."

한 걸음 더, 홀라

그가 대표가 된 계기도 바로 이 활동 속에 있다. 시간과공간연구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만난 청년들과 업사이클 밴드 홀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업사이클 밴드는 폐자원을 사용해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밴드이며, 홀라는 그들과 즐기던 카드 게임의 이름에서 차용한 명칭이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공연하고, 뮤직비디오를 스스로 제작한 경험도 있다.

"카드 게임을 하던 구성원 중 폐자원을 재활용해 악기를 만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친구로부터 홀라가 업사이클 밴드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그 악기가 아까웠던 구성원들이 연주를 해보자고 마음을 모은 거죠. 이게 업사이클 밴드의 시작이었어요."

안 대표는 홀라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업



사진: 신지원 기자

사이클 밴드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그는 일단 도시의 흥망성쇠라는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면 작금의 도시 사이클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사회적 업사이클 개념을 제시하는데, 기존의 도시를 무작정 무너뜨리지 않고 재해석해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는 방식이다. 그는 사회적 업사이클을 통해 결국 인간의 삶이 다채롭게 구성되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홀라는 물리적으로 악기를 만드는 업사이클 밴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업사이클을 실현하는 단체라는 것이 안 대표의 전언이다.

그가 시간과공간연구소로부터 독립하면서 홀라의 몸집은 점점 커져 나갔다. 도시에 대한 역사적 고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선사해 주고 싶었던 안 대표는 10여 년간 몸담았던 시간과공간연구소를 그만뒀다. 홀라가 현재 지역민의 생활사와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예술 중심의 작업을 진행하는 인문예술팀으로 발전한 계기다.

"일을 하면서 한 선배가 젊은 청년끼리 더 자유롭고 재밌는 방식으로 도시를 위해 고민해 보라는 조언을 했어요. 오래 일했으니 자연스럽게 독립할 시기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충고도 영향을 끼쳤죠. 나이가 비슷해 제약 없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홀라의 장점이 크게 다가왔으니 말이에요. 독립하면서는 더 많은 청년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이는 홀라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가 더 좋아지겠다는 희망으로 이어졌죠."

홀라는 이렇게 업사이클 밴드에서 출발해 도시 속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는 인문예술팀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도시 아가

이빙*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대구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어진다. 도시 아카이빙은 재개발로 사라지는 도시를 보호하고 더 나은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 시행된다. 구체적인 업사이클 개념을 제시하는데, 기존의 도시를 무작정 무너뜨리지 않고 재해석해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는 방식이다. 그는 사회적 업사이클을 통해 결국 인간의 삶이 다채롭게 구성되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홀라는 물리적으로 악기를 만드는 업사이클 밴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업사이클을 실현하는 단체라는 것이 안 대표의 전언이다.

도시를 향해 질문하다

현재 안 대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몰입표를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그는 2021년부터 '아카이빙 기획자 과정'의 멘토 활동을 진행 중이다.

"타 아카이빙 기획자 과정보다 까다롭게 진행돼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찾고, 수집하고, 이를 재해석한 기획안을 작성해 각자의 실험 프로젝트까지 수행해야 해요. 어려운 과정임에도 열정 넘치는 참여자들을 보면 지도 에너지를 얻어요. 미래의 동료가 생겨나는 기분이라 애정도 생기고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확립화된 도시 개발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확립화된 개발은 난개발로도 간주할 수 있는데, 이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00년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건물 대신 단기간의 경제성만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30년가량 지속 가능한 건물을 쌓아 올리는 지금의 도시 개발이 변해야 한다고

믿는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하지만, 도시는 자원을 빠르고 많이 쓰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도시 개발의 사이클을 따져보면, 지금은 도시가 다시 무너지는 시기예요. 이때 얼지 않아도 되는 건물도 다 있어야 해요. 100년을 쌓아 올린 기억도 허무는 데 하루면 충분하더라고요."

난개발로 빠르게 사라지는 지금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감당할 세대는 결국 앞으로의 도시를 살아갈 청년세대라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지금,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안 대표는 도시를 '낯설게 바라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관성적으로 도시를 '생존 공간'으로만 보는 시각을 벗어나, 그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도시에 대한 정의와 지향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도시를 낯설게 본다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주변을 둘러보며 10분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보거나, 똑같은 공간을 일주일 정도 매일 다른 시간대에 가서 기록을 해보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도심 속의 놀 똑같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던 사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이 도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지 등 도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도시로 가득 찬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아카이빙 :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



사진 제공: 안진나

▲안진나 대표(왼쪽에서 2번째)를 포함한 홀라 구성원

과음이 불러온 괴로움, 숙취

〈편집자주〉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온다.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울렁거리기까지 한다. 음주 후 찾아오는 불청객, '숙취' 탓이다.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처럼 힘들까? 개강을 맞아 찾아지는 술자리, 그리고 따라오는 숙취가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 숙취의 원인과 올바른 예방법을 알아보자.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사진 : 박희진 기자

알코올 분해를 알리는 인체의 신호

숙취는 음주 이후에 두통, 구토, 갈증 등 불쾌한 신체적 특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인 두통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주요 원인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이하 ADH)'에 의해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이 분해된 물질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을 지니고 있기에, 무독성으로 바꾸기 위해 한 번 더 분해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cetaldehyde Dehydrogenase, 이하 ALDH)'를 통해 '아세트산'과 물로 쪼개지는 것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하는 이 과정에서 몸속 혈액순환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된다. 뇌 속의 혈관에서도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뇌의 압력을 높이면서 두통을 유발한다. ALDH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가 더디지기에, 두통이 더욱 심해진다. 강보승(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 물질로, 숙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증상 또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얼굴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며 발생한다. 김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뇌혈관의 혈류가 빨라지면, 뇌혈관이 팽창돼 두통이 더 심

해진다"며 "얼굴은 모세혈관이 다른 부위보다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활발할수록 쉽게 빨갛게 변한다"고 말했다.

에탄올이 분해되는 과정은 위뿐 아니라 간에서도 일어난다. 위에서는 섭취한 에탄올의 일부만 분해될 수 있기에, 위에서 분해하지 못한 에탄올은 간으로 보내진다. 이때 간이 에탄올을 분해하는 과정은 위의 에탄올 분해과정과 동일하다. 강 교수는 "간이 에탄올의 분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며, 위에서는 일부 에탄올이 분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음할 경우에는 에탄올이 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해 구토와 속쓰림이 발생하거나, '사이토크롬'이라는 간의 효소가 작동한다. ADH가 모든 에탄올을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에탄올을 섭취하면, 사이토크롬이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하기 시작한다. 사이토크롬에 의해 분해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세트산과 물로 쪼개지고, 아세트산은 '아세틸-CoA'와 물로 분해된다. 이때 아세틸-CoA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용되며, 분해 과정에서 중 발생한 모든 물은 소변이나 땀의 형태로 배출된다. 김 교수는 "음주가 장기간 반복되면 사이토크롬의 에탄올 분해 능력이 최대 10배까지 상향되므로 주량이 늘지

만, 늘어난 주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 또한 숙취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에탄올은 항이뇨호르몬 '바소프레신'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바소프레신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체내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에탄올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바소프레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많은 양의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송도선(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바소프레신의 작용이 감소해 소변량이 증가하고, 이는 체내 수분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음주 후 수분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숙취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폼알데하이드'다. 막걸리나 와인, 맥주 등 발효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코올의 한 종류인 '메탄올'이 발생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폼알데하이드'로 분해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에, 발효주를 마셨을 때 더욱 강한 숙취가 나타나는 것이다. 김나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폼알데하이드에 직접 노출되면 두통이나 구토, 심한 복통이 발생하고, 다량 노출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절한 음주가 최선의 해답

그렇다면 숙취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음주 전에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강조한다. 음식물이 위에서의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김나영 교수는 "건강한 성인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에탄올을 섭취한 지 약 30분 내외로 알코올이 흡수되지만, 음식물과 함께 술을 마신다면 알코올 흡수 시간을 약 6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음주 중 수분 섭취 또한 숙취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이 위에 도달한 알코올을 희석해,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는 원리다. 장병국(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는 "물은 위로 들어온 알코올을 희석해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숙취해소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숙취해소제에 포함된 당분과 수분 섭취는 음주 후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된다. 김나영 교수는 "알코올은 체내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숙취해소제는 저혈당, 갈증 등 숙취의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과음 후 맵고 짠 국물 요리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도 전한다. 맵거나 짠 음식은 주로 합성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데, 간은 알코올뿐 아니라 이 같은 합성조미료도 분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합성조미료를 섭취하는 것은 간에 더욱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짠 음식은 세포의 수분을 환골로 끌어들이어 소변량이 증가하고, 수분 감소를 일으켜 숙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숙취 예방책은 단연 '적절한 음주'다. 에탄올을 분해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기에, 본인의 주량과 상태를 파악해 과도한 숙취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나영 교수는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을지라도 소화기계통의 압과 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적절한 양만 마시는 문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교수는 "이미 숙취 증상이 나타났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1%라면, 혈액 100ml당 0.1g의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의미.

온도를 낮추면 마법이 시작된다 : 초전도체

'LK-99', 지난 한 달간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식시장까지 출렁이게 한 장본인이다. 7월 22일, 국내 연구진으로 구성된 퀀텀에너지연구소는 논문을 통해 LK-99가 '상온·상압 초전도체'라 주장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LK-99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한국초전도저온학회가 LK-99 시료를 일부 제조해 검증한 결과, LK-99는 상온·상압에서 초전도체의 성질을 띠지 못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한 바 있다. 과연 초전도체가 무엇일지,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0이고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는 도체'를 말한다. 초전도체의 이 같은 특징이 발현하려면 초전도체 자체가 특정 온도 이하가 돼야 하는데, 이때의 특정한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일컫는다. 하홍수(한국전기연구원 극저온기기연구센터) 센터장은 "초전도체의 특징이 나타나는

가장 높은 온도가 임계온도"라고 말했다.

전기 저항은 무엇이고, 이것이 0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 우선, 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도체 내부에서 원자와 전자 자기 부딪힌다. 이 과정을 겪으며 전력은 일부 손실된다. 이 과정이 전기 저항이며, 전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오를수록 전기 저항의 크기도 증가하지만,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아래로만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 저항의 크기가 0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지형(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는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전도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기 저항이 0인 도체의 외부 자기장'을 두면, 도체 내부에는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생성된다. 내부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이기 때문에, 크

기는 같고 방향은 다른 두 자기장이 서로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되는 것이다. 초전도체가 활용된 자기부상 열차가 공중에 뜬 채로 이동하는 것도 마이스너 효과 덕분이다. 열차와 레일 사이의 두 자기장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공중에서 움직이게 된다.

초전도체의 2가지 특징이 발현하려면 필요한 임계온도는 상온과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초저온이다. 따라서 초전도체를 상온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액체 수소 ▲액체 헬륨 ▲액체 질소 ▲액체 산소 등의 냉매*** 활용이 필수적이다. 박기성(DGIST 화학물리학과) 교수는 "물체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온도를 가진 액체에 넣는 것"이라며 "얼음물에 수박을 넣으면 시원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초전도체마다 임계온도는 제각각인데, 임계온도가 30K(-214℃)보다 높을 경우 고온, 낮을 경우 저온 초전도체로 분류된다. 다만 고온 초전도체도 임계온도가 상온

에 비해 굉장히 낮다. 김 학술연구교수는 "현재까지 발견된 초전도체들은 초전도성이 나타나는 임계온도가 약 130K(-143.1℃) 이하로 상온과 비교해 굉장히 낮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상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구리를 기반으로 한 고온 초전도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임계온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임계온도를 높이기 위해 압력을 조정하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임계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압력이 상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상온과 상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현실화되면, 보다 경제적으로 초전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초전도체는 액체 냉매를 구입하고 보관·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상온·상압 초전도체는 액체 냉매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상당한 비용이

절약된다. 박 교수는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발견되면 냉각시킬 필요가 없어져 냉매를 보관할 공간의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전도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의 증진이 관련 분야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여긴다. 김 학술연구교수는 "아직 초전도체의 비밀을 알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이슈를 통해 초전도체 응용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져 초전도체 연구가 활발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체 : 전류가 흐르는 물질

**자기장 :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등, 자석이 가진 성질이 작용하는 공간

***냉매 : 온도를 낮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상압 : 특별히 압력을 줄이거나 높이지 않을 때의 압력으로, 보통 1기압 정도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문지마 범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

길거리를 거닐다가 두려워진 적은 처음이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1달 사이 2번이나 무차별 살상 범죄, '문지마 칼부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추모하면서, 본인은 타국에서 빈발하는 총기난사 사고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안전망 확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온 사회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는 결국 오인 신고로 인한 과잉 진압 문제까지 낳고 말았다. 지난 5일 밤, '흉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고한 10대 남성을 제압해 체포한 것이다. 해당 남성은 심한 부상을 입어,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흉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강경 대응은 단기적인 예방책에 불과하다. 한정된 경찰력이 언제까지나 상시 현장 배치돼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 멀리 내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의 흉악범죄를 예방하려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예방

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의 범죄심리학자들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경찰은 각 사건별로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문지마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동기 범죄의 공통적인 원인을 파악한다면, 잠재적인 범죄 요인 또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범죄 요인이 나타나는 곳에 사회적 안전망을 편셋처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지금의 사태와 유사한 무차별 살상 범죄가 발생했던 일본은 사회적 유대가 부족하다는 점과 경제적 빈곤을 공통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이상동기 범죄의 공통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땀질 식으로 경찰력을 전진 배치하는 작금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만큼 이제라도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20년, 30년 후의 뉴스에도 '문지마'라는 말이 등장할 것이다.

정상혁 편집국장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노동자연장실천 등 8개의 교육 단체가 지난 8일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뒤섞인 결과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개정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다.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그야말로 폭폭 찌는 여름이었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을 정도다. 더운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냈다. 실제로 폭염주의보 속 에어컨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카트를 운반하던 한 젊은 청년이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숨졌다.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에서 노동자의 휴식시간과 장소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혹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

■ 짐통 더위 속 노동자

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결여도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노동자의 이 같은 권리를 작업중지권이라고 일컫는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작업중지로 인해 손실된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실정이다.

우선, 휴식의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 15분 남짓한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면, 업무 장소에서 휴식장소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기준 역시 제시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동 거리가

고려되어야만 노동자들은 휴식다운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자의 체온 38도를 작업중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성인 구강 체온 기준 약 36.4~37.6도가 정상체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분도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더워질 미래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찾아올 무더위 속, 일하다 죽는 노동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잘 알리기 위해, 잘 알 수 있는 노동 문화가 도래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 낙산에 올라

20대 청년들에게 클래식은 대개 '지루하고 늘어지는 노래'라고 여겨진다. 대중음악에 비해 긴 분량, 가사가 없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특징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곤 한다. 필자 역시 고등학생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 클래식을 멀리했다. 하지만 대학생인 지금, 클래식은 필자에게 K-pop 만큼 즐기기에 좋은 노래가 됐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해 적응하던 때였다. 음악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까지 매주 클래식 노래 약 20개를 듣고 무작위로 문제를 내면 맞혀야 하는 숙제를 내주셨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학급 친구들은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듣던 신나는 대중가요에 몰두해져 있어 투덜대며 억지로 클

클래식에 움찔하다

래식을 들었다. 독해에 집중해야 하는 국어나 영어 지문을 읽을 때를 제외하고 수학, 과학 문제를 풀면서 클래식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집중이 잘 돼서 굉장히 놀랐다. 클래식을 유심히 들어보면 특정 음계를 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루해질 때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음계로 넘어가는 부분도 존재한다. 또 협주곡이나 교향곡을 들어보면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악기들이 선율을 주고받으며 끊이지 않는 대화를 하는 재밌는 부분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 한동안 클래식을 즐기며 학교를 오갔다.

클래식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고나 드라마의 배경 음악 등 꽤 다양한 곳에

서 활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클래식을 가미한 K-pop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들이 등장하면서 일부 클래식은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톱크쇼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가 출연해 인상 깊은 말을 했다. "저는 인터넷 기사 대신 종이신문을 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찾게 되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다. 귀에 익숙하고 유행하는 음악만 듣게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장르의 곡만 찾게 된다. 현재 플레이리스트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부드러움과 절제 사이에서 음계의 오르내림을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은 어떤가?

박소희(IT융합 3)

기자사령

임 편집국장 정상혁(인문 2)

면 편집국장 한혜정(사회과학 3) 부장기자 김기현(인문 3)

동정란

김귀옥(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김 교수는 성신여자대학교 등 5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남두희(사회과학부) 교수 남 교수는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으로 선정돼 교통 분야 정책제안과 현장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7월 20일 「교육과 심리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도서를 출판했으며, 지난 8월 25일 「예비교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도서를 출판했다.

■ 의화정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

상품의 콘셉트가 확실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일정한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면 소비자는 공감하고 호응했다. 친환경 소비를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 더 바디샵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갑을 열게 만들기도 했다.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가져오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리필정책이나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친환경 제품은 한 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선순환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매출부진으로 고전하다 결국 다른 화장품 회사에 매각되었다. 상품의 본질에 충실한 생산이 더 이상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된 결과였다.

이제는 상품의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스토리와 세계관까지 제시한 콘텐츠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라는 광고로 유명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오래 입을 수 있는 튼튼한 옷을 만들어 버려지는 옷을 최소화한다는 슬로 패션에 대해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며 지구 되살리기를 목표로 하는 브랜드 철학을 이야기로 풀어간다.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 옷의 품질이나 콘셉트보다는 연매출 1%를 지구 환경 보호에 사용한다는 브랜드 스토리에 공감하여 구매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의 시나리오처럼 구성된 가상의 세계관이 비즈니스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빙과류 제조 기업인 빙그레는 모두 빙그레 제품으로 디자인된 복장을 입은 미소년 왕자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의 왕위 계승과 빙그레 제국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소개하면서 폭발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B급 문화와 키치적 디자인의 빙그레우스 스토리는 소비자들에게

엔터테인먼트의 소재가 되었다. CU 편의점은 9년 차 알바생이 겪는 다양한 상황을 다룬 '편의점 고인물' 시리즈와 초보 점주의 좌충우돌 운영기를 다룬 '편의점 똑딱이' 시리즈를 유튜브에 선보이며 이례적인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편의점은 배경으로만 등장하며 CU를 이용해 달라거나 CU에서 상품을 구매해달라는 전통적인 마케팅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편의점의 기능적 속성보다는 소비자가 공감하는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단순한 상품 콘셉트나 브랜드를 넘어서는 탄탄한 스토리와 강력한 세계관 구축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상품 그 자체가 아닌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김보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성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한성대신문사에서 제55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영상 촬영
- 레이아웃·인포그래픽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카드뉴스·숏폼 제작 및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 교내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간지 및 주간지 제공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모집기간

9/8(금) 23시 59분까지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